

「건강소식」 100호 發刊을 축하합니다.



會長 徐 丙 高

## 진정한 국민보건계몽의 지침 되도록

우선 誌齡 1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전인 1977년 8월, 첫 창간호를 격월간으로 발간한 이래 햇수로는 11년, 호수로는 제11권 제3호, 통권 100권을 발행한 것입니다. 월간잡지의 100호라면 일간지의 1만호, 주간지의 1천호와 버금가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발행실적으로서 또 한번 경하해 마지 않습니다.

「건강소식」은 창간 10여년동안 국민건강을 위한 계몽지로서 또는 건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침서로서 최선봉에서 막중한 역할을 다해 온 우리의 잡지입니다. 판형은 국판으로 총 62페이지에다 2도칼라 8페이지, 미색모조 52페이지의 호화장정으로 표지는 120아트지에다 원색인쇄로 그 충실한 내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발행부수도 년 25만권으로 막대한 발행부수를 자랑하며 전국 방방곡곡에서 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소식의 보조 및 자매격으로 발행되고있는 질환별 계몽책자인 건강관리 시리즈와 더불어 계몽매체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것입니다.

「건강소식」 발간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린다면 사실은 「건강소식」 발간 이전에 이미 「건강」이라는 잡지가 발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973년 8월달 월간으로 창간호를 낸 「건강」잡지는 76년 12월호를 마지막으로 통권 38호를 발행한 막을 내렸던 것입니다.

건강소식 발행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길 11, 11층 (우편번호 06130) | 전화: 02-552-1111 | 팩스: 02-552-1112 | 홈페이지: www.kknews.com

「건강소식」은 그후 1년반후인 77년8월에 발행되어 그 사명을 다 하면서 지금은 건강관리협회 발행으로 그 소임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편집 내용으로는 기생충관리 이외에도 예방의학적 견지에서 각종 퇴행성 만성 병질환의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위한 계몽내용이라던가 검사를 받음으로써 조기발견, 조기치료로써 질병을 완치할 수 있었다는 “성공사례담”과 “숨은 일꾼을 찾아서”란을 고정설치하여, 음으로 양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숨은 일꾼을 소개하기도 하고 여성싸롱, 문예란등을 담아 쉬어가는 페이지로서의 역할도 하는 다채로운 내용으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또한 뉴스페이지 등을 설치해서 건강관리에 관계되는 각종 뉴스를 알리기도 하며 논단이라던가 질병의 특집을 꾸며, 그 달에 문제가 되는 중요사항을 발표하여 정책 방향 설정에 일조가 되게도 합니다.

독자층도 각계 각층을 망라한 광범위한 독자층으로 구성되어 계몽효과를 거양하고 있는데 전국에 소개하고 있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등 각급학교에 배부하여 계몽하고 있으며 특히 양호교실등에서는 의학지침서로도 널리 활용, 그 이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전국 도서관, 새마을 문고, 일반주민, 회원, 의료보험 지구조합및 단위조합, 전국보건소, 보건진료소등에 배부하여 계몽효과를 한층 드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현대는 바야흐로 P . R의 시대입니다. 모든사업이 얼마만큼 매스콤을 잘 이용하느냐 하는데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홍보매체의 역할은 중차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보건계몽사업에 있어서의 매스콤 활용은 절대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건강소식」발간사업이야말로 보건계몽사업의 절대적인 선도자라고 말 할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천호, 만호가 될 때까지 그 전통을 이어가기를 기원하면서 전국민의 질병이 퇴치되는 그 시간까지 꾸준한 계몽활동을 벌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건강소식」 100호를 발간 기념호에 즈음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1987. 3 . 1

(필자=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 인하대학교학장 · 의박)